

뉴스
초점

D-100 돌아오른 대선정국

박근혜·안철수 정면충돌 경쟁구도 양자대결 쏠림

안 출마선언 초읽기, 야권 단일화 여부 촉각

향후 5년간 한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18대 대선이 10일도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3·4면〉

하지만, 아직도 대선경쟁 구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등 안개 속 대선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100일 전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로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쟁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9일 현재 대선구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양자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대선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대선경선을 계기로 국민의 관심을 끄는 후보를 만들고 이어 안 원장과 단일화를 통해 연말 대선에 이기겠다는 계획이나 경선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경선 자체가 반전카드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안 원장 측은 새누리당의 '불출마 협박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당 박 후보와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안 원장이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대선구

도에서 민주당을 제치며 대선전 전면에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의 대선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투표일인 23일 이전에는 행동에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늦어도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말께 출마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추석 민심이 향후 대선 민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전 초반 구도가 박 후보와 안 원장 간 대결구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양측 간 검증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결은 안 원장과 단일화를 노리는 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국회의는 대선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백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안 원장과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할지 여부다.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여권의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칠 수 있겠지만 안 원장이 독자 출마를 선택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포함된 3자간 대결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 한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 같은 정치공학적 구도 외에 이번 대선은 정책적 측면에서 여야가 상반된 모습보다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야 대권주자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헌법 입안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상대책위원에 이어 대선캠프 좌장으로 영입, 경제민주화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민주당은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외치며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안 원장도 저서 '생각'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으며 정책 면에서 민주당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대선은 또한 대선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 남성'의 성(性) 대결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사회 및 정치 발전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서구 무각사 대웅전 안에 설치된 독일 출신 작가 볼프강 라이프의 '망망대해'. 절에서 재배한 쌀과 작가가 직접 모은 헤이즐넛 꽃가루를 쌀이 만든 작품으로, 꽃가루와 쌀은 생명과 재생을 상징하는 소재로 활용됐다. 비엔날레 개막 이후 일부 관람객이 작품 가운데 꽃가루 데미에까지 들어가 손도장을 남겨놓아 재단측이 긴급 복구하기도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개막 하루만에...광주비엔날레 작품 잇단 훼손

작품 보호 비상...선진 관람문화 의식 절실

제 9회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술계에 위상을 확고히 수립한 대표 미술제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관람문화는 후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12·18면〉

개막한 지 고작 하루 반나절만에 작품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제재하면 오히려 역정을 내는 막무가내식 관람 행태로 작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광주비엔날레 1층 전시관 한 켠엔 뉴질랜드 출신 작가 스콧 이디

(Scott Eady)의 '100대의 자전거 프로젝트'에 쓰인 재활용 자전거 중 파손된 자전거가 길게 늘어섰다. 관람객들이 함부로 다루면서 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12세 미만인 관람객에만 이용을 권고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전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 전시공간까지 타고 돌아다니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에 조성된 슬라브스와 타타스의 작품 '반근대주의자'는 당나귀 모양의 다리가 부러졌고

중국 출신 작가 리 푸춘이 인간의 뼈와 동물 해골에 구멍을 뚫어 천정에 매달고 레이저 불빛을 쬐 발하늘에 쏘아보내도록 한 작품 '한 조각의 하늘'은 관람객들이 레이저 위치를 흔들려 놔 작품 감상이 힘든 상황이다.

시 낭송 작품을 하는 중국 한동작가의 전시 공간과 토론 등이 이뤄졌던 장소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데마파크 놀이터'로 돌변했다.

일부 관람객은 아궁 쿠리니아원의 작품 소재로 쓰인 신발을 신고 전시장을 휘젓고 다니는가 하면, 마이클 주의 줄로 연결된 '분할 불가' 작품 위

에 아이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아슬아슬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 안됩니다'라거나 '만지지 마라', '기대지 마라' 등의 경고 문구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전시관 관계자는 "제지하면 '그림 왜 전시를 하느냐'며 되레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비엔날레재단측은 8일 작품 주변에 보호 헨스를 설치하는 등 작품 훼손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관리 인원이 한정돼 있다보니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김기덕 '피에타' 베니스 황금사자상

한국영화 세계 3대 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첫 수상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8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황금사자상(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2면〉

한국영화가 베니스국제영화제, 프

랑스의 칸국제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제다.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은



시상대에 올라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배우와 스태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베니스영화제에서 영

화 '피에타'를 선택해준 모든 이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민요 '아리랑'을 부르고 내려왔다.

한편 김감독은 이탈리아 18~19세 관객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젊은 비평가상', 이탈리아 현지 온라인 영화매체 기자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골든 마우스상'과 이탈리아의 유명 작가를 기려 만든 '나자레노 타데이상'까지 비공식 상으로도 3관왕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품질 이주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신성자동차(株)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IOPE 스킨리프트

농친주름을 잡아야 어려워요
주름을 놓치면 나이가 되니까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하는 새로운 레티놀

주름은 한번 시작되면 얼굴 전체로 퍼지는데 왜 한 가지 주름에만 신경 쓰세요?
아이오페 레티놀은 주름이 생긴 피부를 활성화시켜 얼굴 전체의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합니다
이제 강력한 레티놀의 리얼한 효과를 얼굴 전체로 느껴보세요

5가지 주름케어로
링클케어, 리얼이 되다

- ✓ 깊은 주름
- ✓ 표정 주름
- ✓ 모공 주름
- ✓ 미세 주름
- ✓ 속 주름

레티놀에이지코렉터
IOPE

Wrinkle Care Whitening Lifting Anti-Aging Pore Care Throat Care Sun Care Hydrating

